보도자료

2026년 1월 13일 대전세종충남 2026-1-3호

이 자료는 1월 14일(수)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1월 13일(화) 17: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제 목 : **대전세종충남지역의 노동시장 특징 분석 및 시사점**

◈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본부장 채희권)는 1월 13일 조사연구보고서 「**대전세종충남지역의 노동시장 특징 분석 및 시사점**」을 발표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작성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작성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문의처: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경제조사팀 이지현 과장
Tel : (042)601-1223 Fax : (042)601-1214 E-mail: daejeon@bok.or.kr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보도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ok.or.kr 〉 지역본부 〉 대전세종충남본부)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대전세종충남지역의 노동시장 특징 분석 및 시사점

2026. 1.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작성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작성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작성자> 경제조사팀 과장 이지현
<조언자> 경제조사팀 팀장 김현철

차 례

〈 요 약 〉

Ⅰ. 검토배경 ····· 1

Ⅱ. 대전세종충남지역 노동시장 현황 ····· 2

Ⅲ. 대전세종충남지역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 6

Ⅳ. 종합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 13

〈 참고문헌 〉

〈 요 약 〉

① 대전세종충남지역의 노동시장은 도시권의 구직난과 농어촌·산업단지의 구인난이 공존하는 구조적 불균형을 보이면서 지역 노동시장내 미스매치가 심각하다.

- 도시 지역은 고학력 청년층 중심의 만성적 구직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농어촌 및 산업단지는 고령화 및 상대적으로 취약한 근로여건 등으로 구조적 인력 부족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러한 이중적 구조는 동일 지역 내에서도 직종에 따라 동시에 관찰되기도 한다.
- 대전세종충남지역은 행정·연구개발 도시(대전·세종), 대규모 제조업 단지(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충남북부), 농공복합 지역(충남남부)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노동시장 수급 유형이 관찰된다는 점에서 분석의 의의가 크다.

② 대전세종충남지역 노동시장의 산업·직종 구성 및 변화 양상은 시·군 단위로 세분화할 경우 지역별 차이가 뚜렷하다.

- 대전·세종은 사무·전문직 및 관련 산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충남북부는 기능·기계조작·조립직의 비중이, 충남남부는 농림어업과 단순노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 또한 취업자 수의 장기적인 변화 역시 대전, 세종, 충남북부와 충남남부 간에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인다.

③ 본 보고서는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지역·직종별 노동시장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여 주요 특징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 2015년부터 2025년 9월까지의 고용행정통계를 토대로 17개 시·군과 4개의 직종군(농림어업, 기능·생산, 서비스·판매, 사무·전문·관리)을 결합한 지역-직종 단위의 노동시장 긴장도(구인인원/구직건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지역 평균 지표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노동시장 내부의 이질성을 살펴보았다.
- 분석에는 베이지안 분석방법 중 하나인 디리슐레 과정 혼합 모형(Dirichlet process mixture model)을 이용하여 노동시장을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④ 분석 결과, 대전세종충남지역의 노동시장은 ① 만성형 구직난, ② 변동형 구직난, ③ 심화형 구인난, ④ 변동형 구인난, ⑤ 경기순응형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 만성형 구직난은 구직 공급이 구인 수요를 상회하는 상태(긴장도 1 미만)가 경기 국면과 무관하게 지속되는 반면, 변동형 구직난은 경기 확장기에는 일시적으로 개선되었다가 둔화 국면에서는 다시 악화되는 모습이다.
- 심화형 구인난은 구인 수요가 구직 공급을 웃도는 상태(긴장도 1 초과)가 시간 경과에 따라 더욱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며, 변동형 구인난은 경기 변동에 따라 구인난이 확대되었다가 완화·조정되는 특징을 나타낸다.
- 경기순응형은 구인 수요와 구직 공급이 대체로 유사한 수준(긴장도 1 내외)에서 경기 변동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는 유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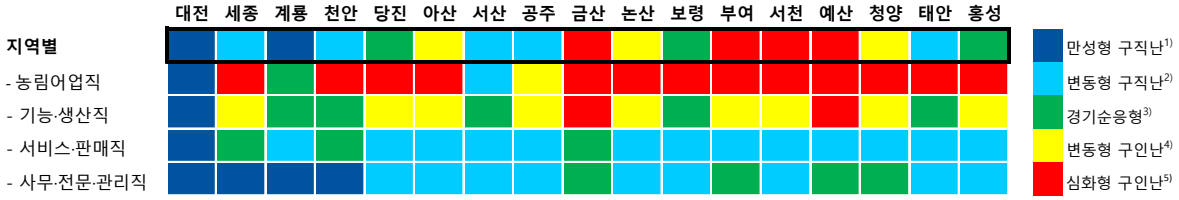
⑤ 대전세종충남지역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을 살펴 보면, ① 일자리 미스매치가 지역보다는 직종별 일자리 특성과 인력 공급 여건에 의해 발생하며, ② 직종에 따라 구인난은 심화되고 구직난은 고착화되는 구조적 불균형이 공존하는 한편 ③ 구인난과 구직난 간의 수급 구조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① 동일 지역 내에서도 직종에 따라 노동시장 수급 유형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즉,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지역 간 차이보다는 직종별 일자리 특성과 인력 공급 여건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되는 모습이다.

— 대전은 전 직종에서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만성형 구직난이 지속된 반면, 세종은 직종별로 다양한 노동시장 수급 유형이 공존하는 모습이다.

— 충남의 경우 농림어업직은 인력 공급 기반 약화로 심화형 구인난이 두드러졌으며, 서비스·판매직은 경기 흐름에 따라 구직난이 변동하는 모습을 보였고, 기능·생산직은 경기 국면에 따라 구인난이 확대·조정되는 특징을 나타냈다.

지역·직종별 노동시장 유형 분류



주: 1) 긴장도 1 미만이며 경기와 무관하게 낮은 수준 유지
2) 긴장도 1 미만이며 경기 흐름에 따라 등락
3) 긴장도 1 내외에서 경기 흐름에 따라 등락
4) 긴장도 1 초과이며 경기 흐름에 따라 등락
5) 긴장도 1 초과이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승

②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가운데, 직종별 수급 구조의 차이로 인해 구인난은 더욱 심화되고 구직난은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만성형 구직난은 전반적으로 낮은 긴장도 수준에서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변동형 구직난의 경우 2022년 경기 회복 국면에서 일시 개선되었으나 그 폭은 제한적이었다. 이는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제한되면서 구직난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심화형 구인난은 고령화 심화와 지속적인 인력 이탈이 누적되며,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되었고, 변동형 구인난의 최근 긴장도의 조정은 구인 수요 감소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③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직종별로 상이한 충격이 누적되면서 구인난과 구직난 간의 수급 구조 격차가 확대되었다.

— 만성형 구직난의 경우 구인인원이 구직건수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긴장도가 낮아지는 반면, 심화형 구인난에서는 구직건수의 감소로 긴장도가 더욱 높아지는 양상이다.

— 이는 향후 유사한 충격이 발생할 경우 구인난과 구직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⑥ 이러한 분석 결과와 함께 향후 AI 기술 확산 등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지역·직종별 상황에 맞춘 다층적 정책대응 등이 요구된다.

▪ 지역·직종별 상황에 맞춘 다층적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 구직난이 고착화된 도시권에 대해서는 신성장 산업 육성, 기업 규모화 등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반을 확충해야겠다.

— 농어촌 및 산업단지의 구인난에 대해서는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농업의 스마트화 등 인력 공급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 특히 변동형 구인난을 겪는 지역 및 직종은 고령인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겠다.

▪ 아울러 직종별 구직난과 구인난의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직무 전환 및 재훈련 체계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Ⅰ. 검토배경

1.1. **대전세종충남지역의 노동시장은 도시 구직난과 농어촌 구인난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중적 구조를 보여왔다.** 일반적으로 대도시에서는 고등교육을 통해 육성된 우수한 청년인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만, 이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어 구직난이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농어촌지역과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에서는 고령화와 상대적으로 취약한 근로여건 등으로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1)]

1.2. **다만 이러한 구직난과 구인난 양상은 지역뿐만 아니라 직종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같은 직종이라 하더라도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의 거리 등 지역 특성에 따라 노동시장 여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하나의 지역 안에서도 직종에 따라 수급상황이 상이하게 전개될 수 있다. 이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특정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구조와 인구구조가 결합된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과 직종을 결합한 보다 입체적이고 세밀한 진단이 필요하다.

1.3. **이러한 점에서 대전세종충남지역은 노동시장 분석의 의의가 크다.** 이 지역은 행정·연구개발 도시(대전·세종), 대규모 제조업 단지(천안·아산·당진·서산), 농공복합 형태의 충남남부 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의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한 권역 내에 응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전세종충남지역을 대상으로 한 노동시장 분석은 전국 단위의 정책 수립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대전세종충남지역 노동시장을 지역과 직종을 결합하여 장기 시계열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기존 노동시장 분석은 월별·분기별 동향 모니터링이나 특정 시점의 지역 간 횡단면 비교에 집중되었으며, 10년 이상의 장기 추세 속에서 지역과 직종의 이질성을 동시에 포착한 분석은 부족하다.

1.5. **이에 본 보고서는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지역·직종별 노동시장 구조를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통해 노동시장 불균형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전세종충남지역의 구조적 특징을 보다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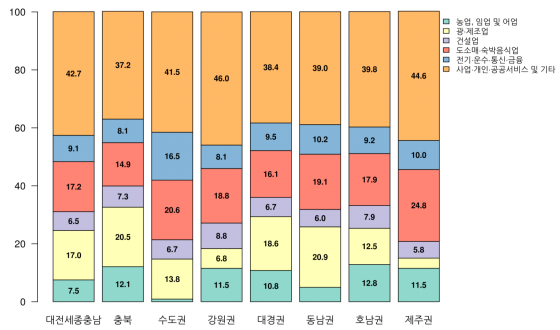
1) 남기찬 등(2020), 민순홍(2025) 등 참조

Ⅱ. 대전세종충남지역 노동시장 현황

2.1. **대전세종충남지역의 노동시장은 산업과 직종 구성 측면에서 보면 특정 부문에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구조를 보인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그림 2.1], 이는 주요 제조업 공장이 위치한 충남북부(천안, 아산, 당진, 서산), 농어촌 지역이 중심인 충남남부[2], 행정·연구개발기능이 집중된 대전,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 등 상이한 지역 특성이 결합된 결과이다. 직종별로는 관리자·전문가·사무직 비중이 비수도권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기능·기계조작·조립 종사자의 비중도 영남권과 충북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다. 반면 농림어업 및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그림 2.2].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산업·직종구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중간 형태

[그림 2.1] 권역별 취업자 수 기준 산업별 비중[1)]



주: 1) 2025년 상반기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2.2] 권역별 취업자 수 기준 직종별 비중[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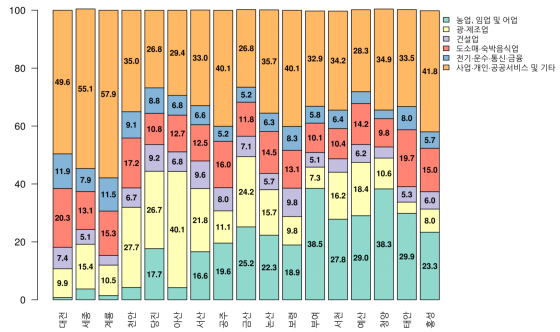
주: 1) 2025년 상반기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2.2. **대전세종충남지역을 시·군 단위로 세분화하면 산업 및 직종 구성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그림 2.3, 2.4]. 대전과 세종은 행정·연구개발 중심 도시로 사무·전문직 및 관련 산업의 비중이 높고, 계룡 역시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충남북부 지역은 평균 취업자의 30% 이상이 기능·기계조작·조립직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제조업 중심 구조를 보이는 반면, 충남남부 지역은 농림어업과 단순노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면서도 제조업과 서비스업도 함께 분포하는 농공복합 형태를 나타낸다.

2) 충남남부는 충남북부를 제외한 11개 충청남도 시·군(공주, 보령,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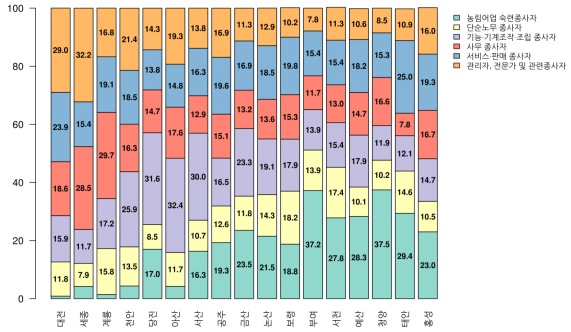
대전세종충남지역 내 시군별 산업·직종 구조 간 이질성이 큰 모습

[그림 2.3] 시군별 취업자 수 기준 산업별 비중[1)]



주: 1) 2025년 상반기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2.4] 시군별 취업자 수 기준 직종별 비중[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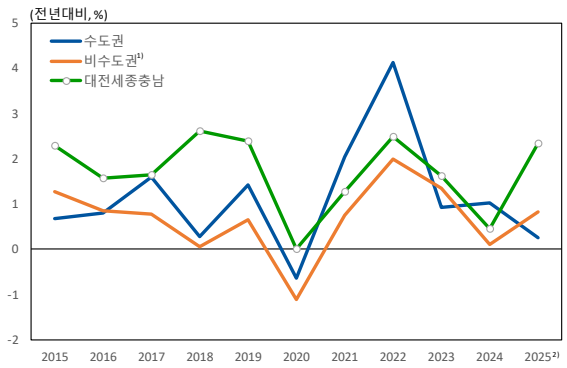
주: 1) 2025년 상반기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2.3.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장기적인 취업자 수 변화도 여타 지역과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전세종충남지역은 전반적으로 완만한 증감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증감률의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그림 2.5]. 같은 기간 수도권은 코로나19 이후 큰 폭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반면,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둔화 흐름을 보였다.

2.4. **취업자 수 변화는 대전세종충남지역 내에서도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그림 2.6]**.** 충남북부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양(+)의 증가율을 유지한 반면, 충남남부는 경기상황에 따라 증감률이 오르내리는 순환적 패턴을 보였다. 대전은 전 기간에 걸쳐 0% 내외의 완만한 증감을 반복하며 변동성이 크지 않았고, 세종은 2010년대 후반 높은 증가율에서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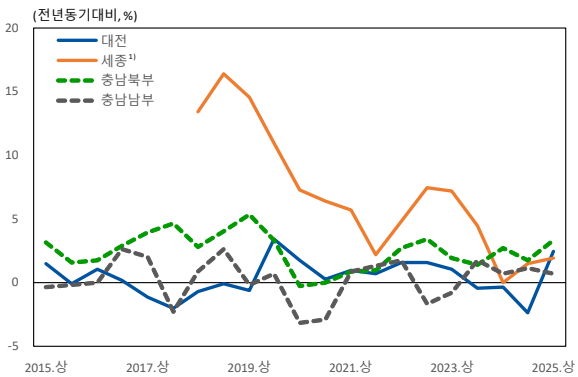
취업자 수의 증감 추이는 권역별·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남

[그림 2.5] 권역별 취업자 수 증감률



주: 1) 비수도권은 수도권 및 대전세종충남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함
2) 2025년은 1~9월 평균
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2.6] 대전세종충남의 지역별 취업자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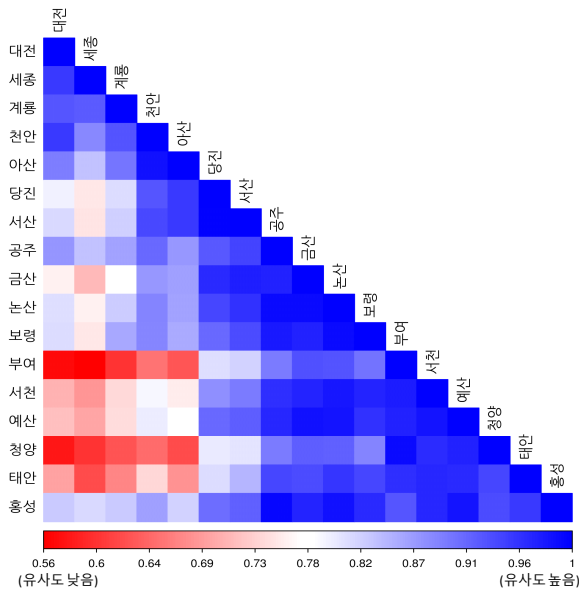
주: 1) 세종특별자치시 자료는 2017년부터 충청남도에서 분리하여 제공
자료: 국가데이터처

2.5. **앞서 살펴본 대전세종충남지역 노동시장의 지역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간 유사성을 보면 직종 구성의 유사도[3]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7]. 제조업 비중이 높은 충남북부 지역 도시 간, 그리고 대전·세종·계룡 간에는 직종 구성의 유사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농림어업 비중이 높은 부여·청양·금산 등 충남남부 일부 지역은 대전·세종은 물론 충남북부 도시들과도 유사도가 낮았다. 이는 시군별 산업 기반의 차이가 취업자 구조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6. **또한 취업자 수의 변화 역시 지역 간 공통된 패턴을 보이지 않았다**[그림 2.8]. 시군별 취업자 수 증감률 시계열의 상관계수는 평균 0.05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취업자 수의 증감 흐름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전개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대전세종충남지역의 노동시장은 취업자 수의 장기 흐름에서도 하나의 통합된 흐름보다는 지역별 특성이 더 강하게 작용해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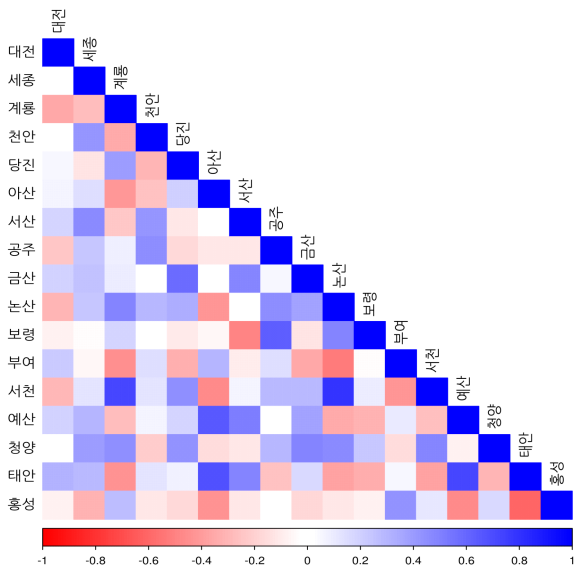
지역별 직종 구조, 지역별 시계열 간 상관계수는 낮은 수준

[그림 2.7] 시군별 직종별 취업자 비중[1] 간 유사도



주: 1) 2025년 상반기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2.8] 시군별 취업자 증감률 시계열[1] 상관계수



주: 1) 2018년 상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의 취업자 수 증감률의 시계열
자료: 국가데이터처

3) 분석에는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를 이용하였으며, 이는 두 벡터 간 유사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두 비중 구조가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는 1의 값을 가지며, 구조가 상이할수록 0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

2.7. **종합하면, 대전세종충남지역의 노동시장은 지역별로 취업자 구조와 취업자 수의 장기 변화 양상에서 뚜렷한 이질성이 존재한다.** 이는 대전세종충남지역을 하나의 단일한 노동시장으로 보기보다는, 복합적인 노동시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8. **다만 지금까지의 분석은 취업자 구조와 취업자 수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노동시장 내 수급 불균형을 직접적으로 포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동일한 취업자 증가 국면에서도 구인 수요가 이를 상회하면 구인난이 발생하고, 반대로 취업자 수가 유지되더라도 구직자가 더 빠르게 증가하면 구직난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별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동 수요(구인)와 공급(구직)을 함께 고려하는 지표를 살펴보아야 한다.

2.9. **이에 따라 다음 장에서는 구직건수 대비 구인인원으로 정의되는 노동시장 긴장도(tightness)를 활용하여, 지역·직종별 노동시장 수급 상황의 특성과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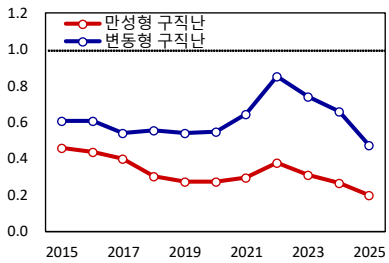
Ⅲ. 대전세종충남지역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3.1. **본 장에서는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지역·직종별 노동시장 불균형을 파악해보기 위해 노동시장 긴장도를 추정하였다.**[4] 본 장에서 구직건수 대비 구인인원 배율로 정의된 긴장도를 이용하며, 긴장도가 1을 상회**구인인원>구직건수**하는 경우 일자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부족한 구인난 상태를, 1 미만**구인인원<구직건수**인 경우에는 일자리가 부족해 구직 경쟁이 심한 구직난 상태를 의미한다. 분석기간은 2015년부터 2025년 9월까지이다.

3.2. **지역·직종별 노동시장 긴장도의 시계열을 이용하여 군집분석[5]을 실시한 결과, 대전세종충남지역 노동시장 불균형 정도를 5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별로 보면, 만성형 구직난은 분석대상기간 중 긴장도가 1 미만에서 형성되어 구직 공급이 구인 수요를 상회하는 상태가 지속되며, 경기 국면과 무관하게 낮은 긴장도가 장기간 유지되었다. 변동형 구직난은 긴장도가 1 미만에 머무르지만, 경기확장기에는 다소 개선되고 둔화국면에서는 다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인다[그림 3.1]. 반대로 심화형 구인난은 긴장도가 1을 상회하는 인력 부족 상태가 지속적으로 관찰되며 시간 경과에 따라 긴장도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변동형 구인난은 긴장도가 1을 상회하며 경기 확장기에는 긴장도가 크게 높아지고 경기 둔화기에는 완화되는 등 경기 변동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그림 3.2]. 한편 경기순응형 유형은 경기 변동에 따라 긴장도가 1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구조적 불균형보다는 경기 변동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특징을 보인다[그림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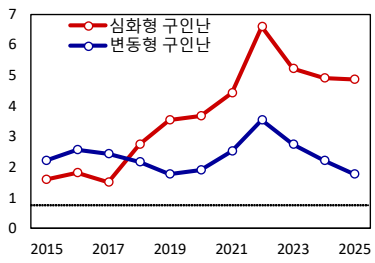
대전세종충남지역 노동시장 수급 군집 유형별 긴장도 추이

[그림 3.1] 구직난 긴장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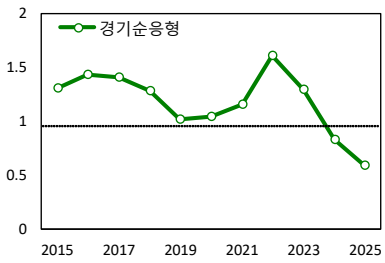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그림 3.2] 구인난 긴장도 추이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그림 3.3] 경기순응형 긴장도 추이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4) 분석에는 고용행정통계 구인·구직자료의 2015~2025년 연간 합계치(2025년 1~9월 누적 합계치)를 활용하였다. 분석대상은 17개 시·군과 4개 직종군으로 구성된 68개 지역-직종이다.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참고 1>을 참조하기 바란다.

5) 본 분석에는 사전적으로 군집의 개수를 정하지 않고 관측치 간 유사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베이지안 비모수 추정방법 중 하나인 디리슐레 과정 혼합 모형(Dirichlet process mixture model)을 활용하였다. 자세한 군집분석 방법론은 <참고 2>를, 군집분석 결과는 <참고 3>을 참조하기 바란다.

3.3. **대전세종충남지역 노동시장을 유형별로 구분한 결과, 대전지역은 만성형 구직난, 충남지역 농림어업직은 심화형 구인난, 충남지역 기능·생산직은 변동형 구인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전세종충남지역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단순히 '구직난'과 '구인난'으로 구분되기보다는 불균형의 지속성 및 경기[그림 3.4] 민감도에 따라 성격이 뚜렷하게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지역·직종별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특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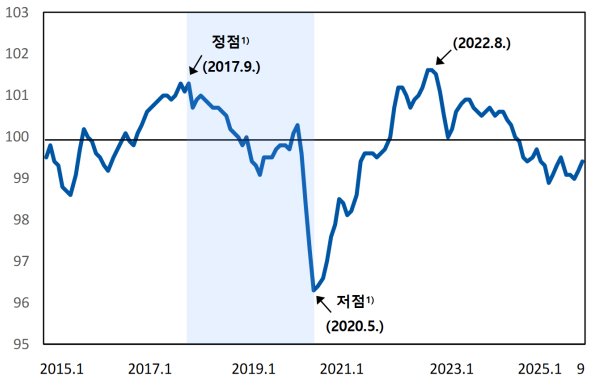
대전세종충남지역의 노동시장은 긴장도의 수준과 변동성에 따라 다섯 가지로 분류

[표 3.1] 노동시장 수급 군집의 유형별 분류

유형		대표 지역-직종
구직난	만성형	대전 전직종, 천안·세종 사무·전문·관리직
	변동형	충남 서비스·판매직 및 사무·전문·관리직
구인난	심화형	충남 농림어업직
	변동형	충남 기능·생산직
경기순응형		천안·서산 기능·생산직

자료: 저자 추정

[그림 3.4] 경기순환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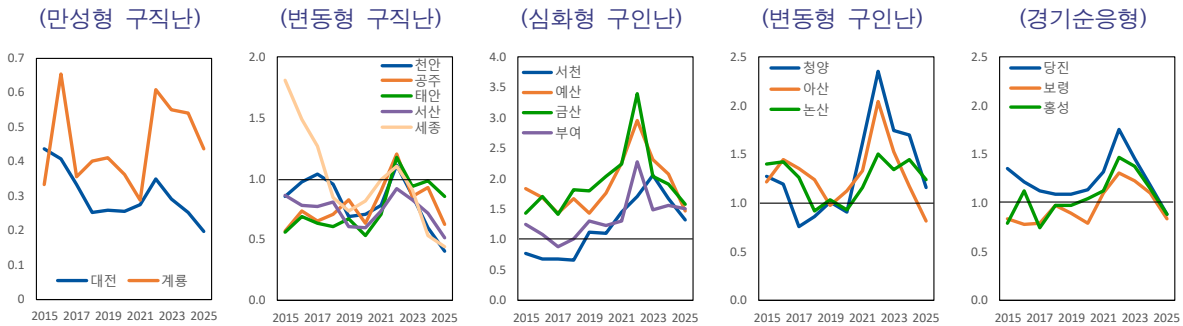
주: 1) 경기순환기 기준 잠정 기준순환일
자료: 국가데이터처

① 노동시장 수급구조가 직종 특성에 좌우되는 경향

3.4. **대전세종충남지역의 노동시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역에 따라 노동시장 수급 유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그림 3.5]**.** 도시권인 대전과 계룡은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낮은 긴장도가 지속되는 만성형 구직난 유형에 포함되는 반면, 충남 남부의 농어촌 지역은 심화형 또는 변동형 구인난 유형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충남북부 지역은 구직난과 구인난 유형에 혼재되어 나타나며, 지역 간 분포가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다.

노동시장 수급상황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모습이 나타남

[그림 3.5] 노동시장 유형별로 본 지역별 긴장도 추이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3.5. **다만 이러한 지역별 유형 분포는 각 지역 노동시장 성격을 단정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지역 내 직종 구성과 각 직종의 수급 여건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홍성군의 경우 지역 전체로 집계한 긴장도는 경기순응형 구조를 보이지만, 직종별로 분해해 보면 농림어업직은 심화형 구인난, 기능·생산직은 변동형 구인난, 서비스·판매직과 사무·전문·관리직은 변동형 구직난으로 서로 다른 유형이 동시에 나타난다[그림 3.6]. 이는 지역 단위의 평균적 특성만으로는 노동시장 불균형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일 지역 내에서도 직종에 따라 수급 구조가 분화되어 있음

[그림 3.6] 대전세종충남지역 지역-직종 노동시장 유형 매트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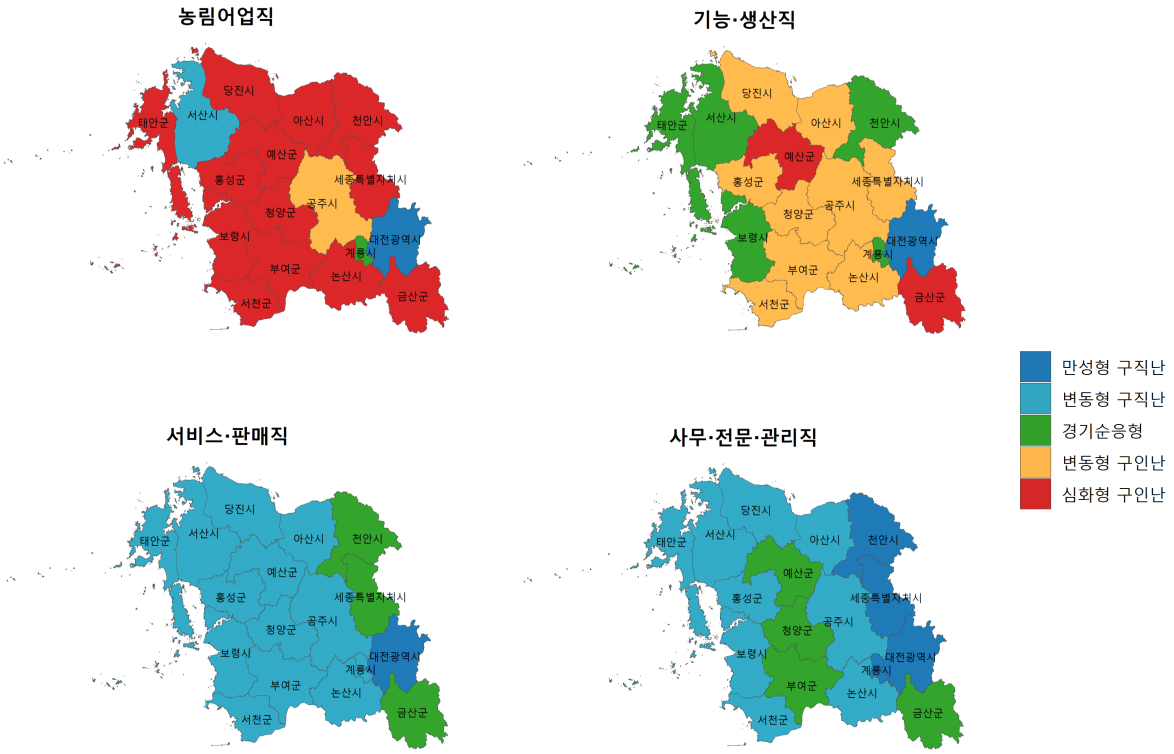
자료: 저자 추정

3.6. **이처럼 지역 단위 평균은 노동시장 내부의 이질성을 포착하기 어려우므로, 다음에서는 관점을 지역에서 직종으로 전환하여 수급구조를 살펴본다.** 군집분석 결과, 지리적으로 떨어진 지역이라도 동일한 직종은 유사한 유형에 속하는 경향이 확인된다[그림 3.7]. 예를 들어 농림어업직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력 부족이 심해지는 심화형 구인난으로 분류된 반면, 사무·전문·관리직은 지역과 관계없이 구직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구직난 유형에 속하였다. 반면 대전은 모든 직종에서 만성형 구직난이 지속되어, 직종 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예외적인 구조를 보인다.

3.7. **종합하면 대전세종충남지역의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지역 간 차이보다는 직종별 일자리 특성과 인력 공급 여건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되는 모습이다.** 이는 노동시장을 지역 단위 평균으로만 파악할 경우 정책 대응의 방향이 왜곡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지역별 정책 설계에 직종별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역보다는 직종별로 군집이 형성되는 경향

[그림 3.7] 대전세종충남지역 직종별 군집 분포



자료: 저자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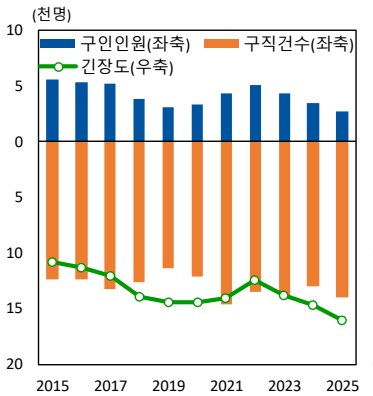
② 구직난과 구인난의 상이한 전개 양상

3.8. **대전세종충남지역 노동시장에서의 구직난과 구인난은 동일한 방식으로 전개되기보다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는 노동시장의 구직난과 구인난이 각각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차별화된 구직난과 구인난의 전개 양상은 경기 변동의 영향이 제한적인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및 수도권 집중 등에 따른 인력 공급 구조 변화가 직종별로 다르게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3.9. **구직난은 전반적으로 낮은 긴장도 수준에서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며, 뚜렷한 완화 조짐은 관찰되지 않는다.** 대전을 중심으로 한 만성형 구직난은 분석대상기간 중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긴장도 0.3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그림 3.8], 이는 구직건수가 구인인원의 3배에 달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비스·판매직 및 사무·전문·관리직이 주를 이루는 변동형 구직난도 2022년 경기 회복 국면에서 일시 개선되었으나 개선 폭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3.9]. 이는 청년층 인구 감소[6]에도 불구하고 고학력 인력의 선호 직종 편중이 지속되는 반면[그림 3.10], 지역 내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제한되면서 구직난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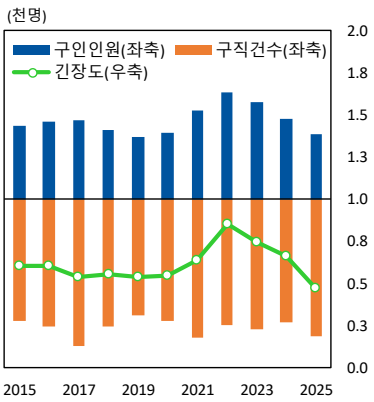
대전세종충남지역의 구직난은 구조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고착화되는 모습

[그림 3.8] 만성형 구직난 군집의 구인·구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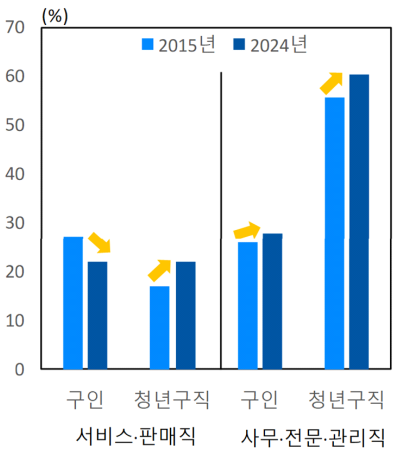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그림 3.9] 변동형 구직난 군집의 구인·구직 추이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그림 3.10] 구인인원 및 청년[1] 구직건수의 직종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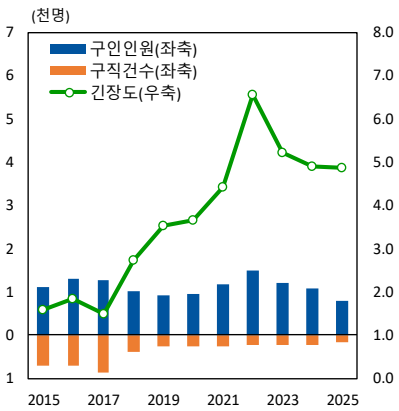
주: 1) 29세 이하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6)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청년(15~29세) 인구는 2015년 63.8만명에서 2024년 59.2만명으로 7.3% 감소하였으며, 청년(15~29세) 비중은 2015년 17.7%에서 2024년 15.6%로 감소하였다.

3.10. **반면 구인난은 세부 유형에 따라 전개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충남 일부 군 지역의 기능·생산직과 충남의 농림어업직을 포함한 심화형 구인난 군집의 긴장도는 코로나19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3.11]. 이는 충남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령화 심화와 지속적인 인력 이탈 등 구조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로 해석된다[그림 3.12]. 한편 변동형 구인난의 경우 최근 긴장도가 조정되는 모습이 관찰되나[그림 3.13], 이를 인력 부족의 해소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채용 축소 등 구인 수요 감소의 영향이 함께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종합하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변화는 농림어업직, 기능·생산직 등 일부 직종에서의 구인난을 경기 국면과 무관하게 구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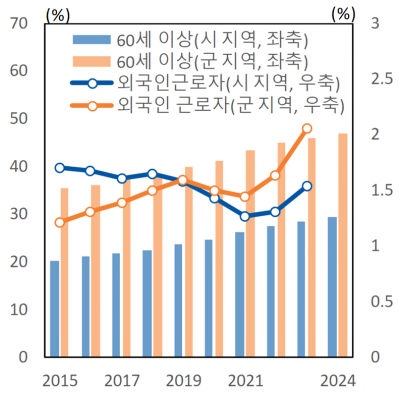
충남 농어촌지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구인난이 심화되는 모습

[그림 3.11] 심화형 구인난 군집의 구인·구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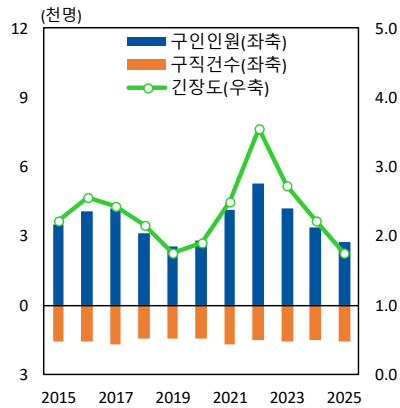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그림 3.12] 충남지역 60세 이상 및 외국인 근로자 비중



자료: 국가데이터처, 행정안전부

[그림 3.13] 변동형 구인난 군집의 구인·구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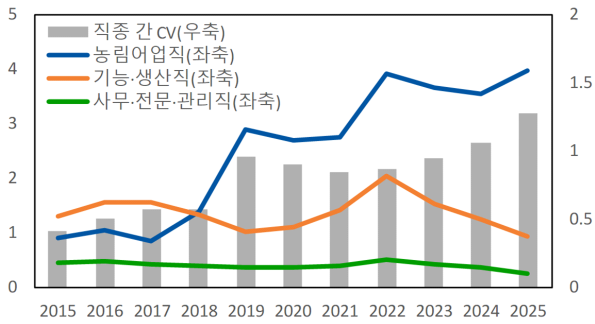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③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직종 간 격차 심화

3.11.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은 대전세종충남지역 노동시장에 전반적인 충격을 주었으나, 그 영향은 직종별로 비대칭적으로 작용하였다.** 팬데믹 충격 이후 긴장도의 직종 간 변이계수는 2015년 0.41에서 2025년 1.27까지 상승한 반면[그림 3.14], 같은 기간 중 긴장도의 지역 간 변이계수는 0.44에서 0.48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3.15]. 이는 지난 10여 년간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지역 단위보다는 직종 단위에서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왔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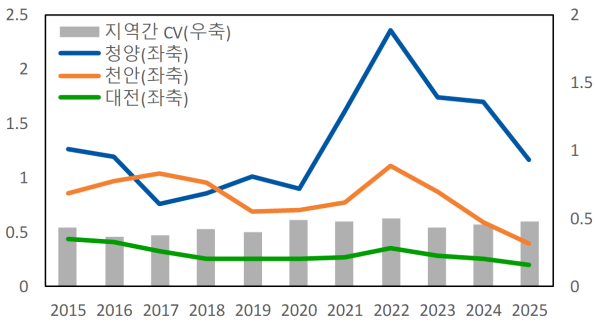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직종 간 노동시장 분절화가 가속화

[그림 3.14] 직종별 긴장도 및 직종 간 변이계수(CV)



자료: 저자 추정

[그림 3.15] 지역별 긴장도 및 지역 간 변이계수(CV)



자료: 저자 추정

3.12. **이러한 직종 중심의 이질성 확대는 팬데믹 이후 각 군집의 수급구조에서도 확인된다.** 만성형 구직난을 보인 군집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 충격으로 구인인원이 구직건수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며 긴장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하였다. 이후에도 긴장도는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7] 반면 심화형 구인난 군집은 분석대상기간 중 구직건수의 감소로 긴장도가 급등하였으며, 인력 부족 문제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13. **이러한 분석 결과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외생적 충격이 단기적인 경기변동을 넘어 노동시장 수급 구조의 분화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향후 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자동화의 진전 역시 직종별 노동 수요와 인력구조에 비대칭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또 다른 구조적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8]

7) 김유빈 등(2022)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기업 구인비중 감소로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구인-구직 미스매치가 악화되었음을 지적하였다.

8) 오삼일 등(2025a), 한지우·오삼일(2023), 한진수·오삼일(2025) 등은 AI 도입이 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확대하는 동시에, AI 노출 정도에 따라 업종별 일자리 및 고용 변화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AI가 일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한편, 직무 재편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Ⅳ. 종합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종합 평가

4.1. **대전세종충남지역의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단기적인 경기요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판단된다.** 대전세종충남지역에서 구직난과 구인난은 동일한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고, 직종별 구조와 인력 공급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전세종충남지역의 노동시장 문제가 경기 변동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직종 중심의 구조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임을 시사한다.

4.2. **앞서 확인한 구조적 불균형은 인구 구조 변화와 기술 충격 하에서 직종별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구직난의 경우 만성형 구직난뿐만 아니라 변동형 구직난에서도 경기 개선 국면에 대한 반응이 제한적으로 나타나, 경기 부양이나 단기적 일자리 확대만으로는 구조적 완화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향후 AI 기술 확산과 같은 기술적 충격은 직종별 노동 수요에 비대칭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구직난과 구인난의 구조적 차이를 더욱 확대시킬 여지도 있다. 이는 앞서 확인한 직종 중심의 구조적 불균형이 외부 충격 하에서도 지속·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정책 대응 역시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4.3. **대전세종충남지역은 행정·연구개발, 제조업, 농림어업이 함께 존재하는 복합적인 산업구조를 지닌 지역으로, 전국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수급 불균형이 압축적으로 관찰된다.** 이러한 특성은 정책적 부담요인인 동시에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실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구직난과 구인난의 상이한 동태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전세종충남지역은 전국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적 시사점

4.4.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에 비추어 지역·직종별 상황에 맞춘 다층적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먼저, 만성형·변동형 구직난은 경기 개선 국면에서도 완화 폭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 구직난 완화를 위해서는 경기 대응 중심의 접근보다는 산업 구조와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 대전 등 청년 구직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신성장 산업 육성, 기업의 규모화 유도[9]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을 확충할 필요성이 크다.

4.4.1. **농어촌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심화형 구인난에 대해서는 인력 공급 기반을 보완하는 정책과 함께 근로환경 개선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충남의 농림어업직과 일부 기능·생산직에서는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단기적인 인력 유입만으로는 구인난 해소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업의 기계화·스마트화를 추진하는 한편, 근로환경 및 생활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인력 정착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4.4.2. **한편 변동형 구인난의 경우 퇴직 후 재고용[10] 등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유형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 채용, 채용조건 완화 등의 시장 메커니즘이 일정 부분 작동[11]하면서 긴장도가 제한적으로 완화되는 모습도 함께 관찰되었는데, 이는 구인난이 구조적 성격을 지니는 문제인 동시에 시장 대응 여지도 일부 존재함을 의미한다.

4.5.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는 지역 단위의 획일적 정책보다는 직종 특성을 고려한 다층적 대응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일 지역 내에서도 직종별로 수급 불균형의 성격과 조정 가능성이 상이한 만큼, 직종별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직무 전환과 재훈련 체계를 강화하여 구직자의 역량과 산업 수요 간 미스매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4.6. **노동시장 불균형은 지방정부 정책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중앙정부와의 공조가 필요하다.** 고용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토대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9) 고영선(2024)은 기업의 규모화(scale-up)가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10) 오삼일 등(2025b)은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해 숙련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유연한 조건으로 재고용하는 방안이 생산적인 인력수급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11) 노용진(2024)은 중소제조업의 사례조사를 통해 인력수급 문제가 외국인 근로자 사용, 인력 공급업체를 통한 용역근로자 활용 등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일부 해소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참고 1 노동시장 분석 데이터

지역·직종별 노동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노동시장 긴장도를 양적지표로 사용하였다. 노동시장의 긴장도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으나, 본 고에서는 송상윤 등(2023)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구직건수 대비 구인인원 비율(구인배율)로 측정하였다. 긴장도가 1을 상회할 경우에는 구인난(인력 부족)이, 1을 하회할 경우에는 구직난(일자리 부족)인 상태를 의미한다. 분석자료는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의 구인·구직자료를 이용하였다. 구인배율이 1을 크게 웃돌 경우, 노동시장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구인난을, 구인배율이 1을 크게 밑돌 경우 일자리가 부족한 구직난을 의미한다.

분석대상은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의 15개 시·군을 포함한 총 17개의 시·군 단위를 대상으로 하며, 직종은 한국고용직종분류를 바탕으로 4가지 범주(농림어업직, 기능·생산직, 서비스·판매직, 사무·전문·관리직)로 통합하였다. 분석대상기간은 2015년부터 2025년 9월까지 10년 9개월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월별 구인·구직 실적을 연간 단위로 합산(2025년은 1~9월 합산)하여 연간 긴장도를 산출하였다. 총 68개(17개 지역×4개 직종)의 지역–직종단위(예: 대전광역시의 농림어업, 당진군의 제조·기술직 등)를 대상으로 10년 9개월 긴장도 추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고용행정통계의 구인·구직실적은 사업체가 고용센터 및 워크넷에 등록한 구인공고와 구직자가 등록한 구직신청 자료를 집계한 것이다. 이는 민간채용 절차나 여타 채용경로를 통한 일자리 및 구직활동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노동시장의 절대규모를 대변하기보다는 지역 노동시장의 시기별 상대적 수급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제8차 한국고용직종분류와 분석대상 분류

분석대상 분류(4)	대분류(10)
농림어업직	농림어업직
기능·생산직	건설·채굴직
기능·생산직	설치·정비·생산직
서비스·판매직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서비스·판매직	영업·판매·운전·운송직
사무·전문·관리직	경영·사무·금융·보험직
사무·전문·관리직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사무·전문·관리직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사무·전문·관리직	보건·의료직
사무·전문·관리직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저자 분류

참고 2 군집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디리슐레 과정 혼합 모형(Dirichlet process mixture model, 이하 DPM)을 이용하여 대전세종충남지역 노동시장의 군집(cluster)분석을 수행하였다. DPM은 베이지안 비모수 추론기법 중 하나로, 군집의 수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데이터로부터 군집의 수와 형태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모형이다. 또한 군집 할당에 따른 사후분포(posterior distribution)를 제공하므로, 군집분석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DPM을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인 stick-breaking process (Sethuraman, 1994)을 활용하였으며, 지역·직종별 10년 9개월간 긴장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AR(1) 구조로 모형화하였다.

분석단위는 지역-직종 조합별 연도별 긴장도 시계열이며, 총 68개 단위($u=1,...,68$)로 구성된다. t는 연도($t=2014,...2025$)를 의미하며, $y_{u,t}=\log(\text{긴장도}_{u,t})=\log\left(\frac{\text{구인인원}_{u,t}}{\text{구직건수}_{u,t}}\right)$로 정의된다. 각 관측치의 시계열($y_{u,.}$)은 K개의 군집 중 하나 $k(k=1,...,K,\ l=1,...,K-1)$에 속하며, 모형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
\begin{aligned}
y_{u,t}|z_{u,t}=k,\boldsymbol{\mu},\sigma_k^2 &\sim \mathcal{N}\left(\mu_{k,t},\sigma_k^2\right),\\
z_{u,t}|\boldsymbol{b} &\sim Discrete\left(\nu_1(\boldsymbol{b}),...,\nu_K(\boldsymbol{b})\right),\\
b_l|\alpha &\sim Beta(1,\alpha),\\
\mu_{k,1}|m_0,\tau_{\mu_0}^{-1} &\sim \mathcal{N}\left(m_0,\tau_{\mu_0}^{-1}\right),\\
\mu_{k,t}|\mu_{k,t-1},\phi_k,\tau_\eta &\sim \mathcal{N}\left(\phi_k\mu_{k,t-1},\tau_\eta^{-1}\right),\\
\phi_k &\sim \text{Uniform}(-0.99,0.99),\\
\tau_\eta &\sim \text{Gamma}(1,1),\\
\tau_{\mu_0} &\sim \text{Gamma}(1,1),\\
m_0 &\sim \mathcal{N}(0,100),\\
\sigma_k^2 &\sim I.G(5,5),\\
\alpha &\sim \text{Gamma}(0.1,1)
\end{aligned}
$$

$z_{u,t}$는 관측치 $y_{u,t}$가 1부터 K까지의 군집 중 어떤 군집에 속하는지를 나타내며, k번째 군집의 평균은 $\boldsymbol{\mu}=(\mu_{k,2014},...,\mu_{k,2025})'$로, 분산은 σ_k^2로 나타낸다. $Discrete\left(\nu_1(\boldsymbol{b}),...,\nu_K(\boldsymbol{b})\right)$는 $\left(\nu_1(\boldsymbol{b}),...,\nu_K(\boldsymbol{b})\right)$를 확률로 하는 이산단일분포를 나타낸다. $\boldsymbol{b}=(b_1,...,b_{K-1})'$는 $(K-1)\times 1$벡터로 $v_1=b_1$, 1보다 크고 K보다 작은 k에 대해서는 $v_k(\boldsymbol{b})=b_k\prod_{l=1}^{k-1}(1-b_l)$, $v_K(\boldsymbol{b})=\prod_{l=1}^{K-1}(1-b_l)$로 정의한다. $\mathcal{N}$은 정규분포, $Beta$는 베타분포, $Uniform$은 단일분포, $Gamma$는 감마분포, $I.G$는 역감마분포를 각각 의미한다. 추정 후 지역·직종별 클러스터의 분류는 MAP(maximum a posteriori) 방법을 이용하였다.

모형은 R의 NIMBLE(NIMBLE Development Team, 2021) 패키지를 이용하여, MCMC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사후표본의 trace plot과 Gelman-Rubin 통계량 등을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주요 모수(parameter)의 안정적인 수렴이 확인되었다.

참고 3 군집분석 결과

분석 결과 총 9개 군집이 식별되었으며, 이를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대전세종충남지역 노동시장 군집분석 결과

유형		군집 수	지역-직종 수	비중[1](%)	
				구인	구직
구직난	만성형	1	7	24.9	57.0
	변동형	1	23	20.8	19.1
구인난	심화형	4	15	7.7	1.0
	변동형	1	10	24.2	6.7
경기순응형		2	13	22.3	16.3
합계		9	68	100	100

주: 1) 2024년 기준 각 유형이 연간 구인인원 및 구직건수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중
자료: 저자 추정

[① 구직난]

만성형 구직난의 경우 청년층 비중이 높은 대전광역시의 전 직종, 세종특별자치시와 계룡시의 사무·전문·관리직 등에서 확인되며, 분석대상기간 중 긴장도는 유의미한 전환 없이 0.3 내외의 수준에서 고착화된 모습을 보인다. 이 군집의 긴장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5년의 구직난은 2015년 대비 소폭 심화된 모습이다. 이 군집에 속하는 지역–직종의 구인인원은 2015년 월평균 5.7천명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2025년 월평균 2.8천명으로 50.9% 감소하였으나, 구직건수는 2015년 월평균 1.2만건에서 2025년 월평균 1.4만건으로 13.3% 증가하여, 긴장도는 2015년 0.5에서 2025년 0.2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변동형 구직난 군집은 충남지역 다수 시·군의 사무·전문·관리직과 서비스·판매직에서 나타났다. 2021년 이전 0.7 이하 수준의 긴장도를 유지하다 2022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0.9까지 일시 개선되었으나, 2023년 이후 재악화되는 모습이다.

[② 구인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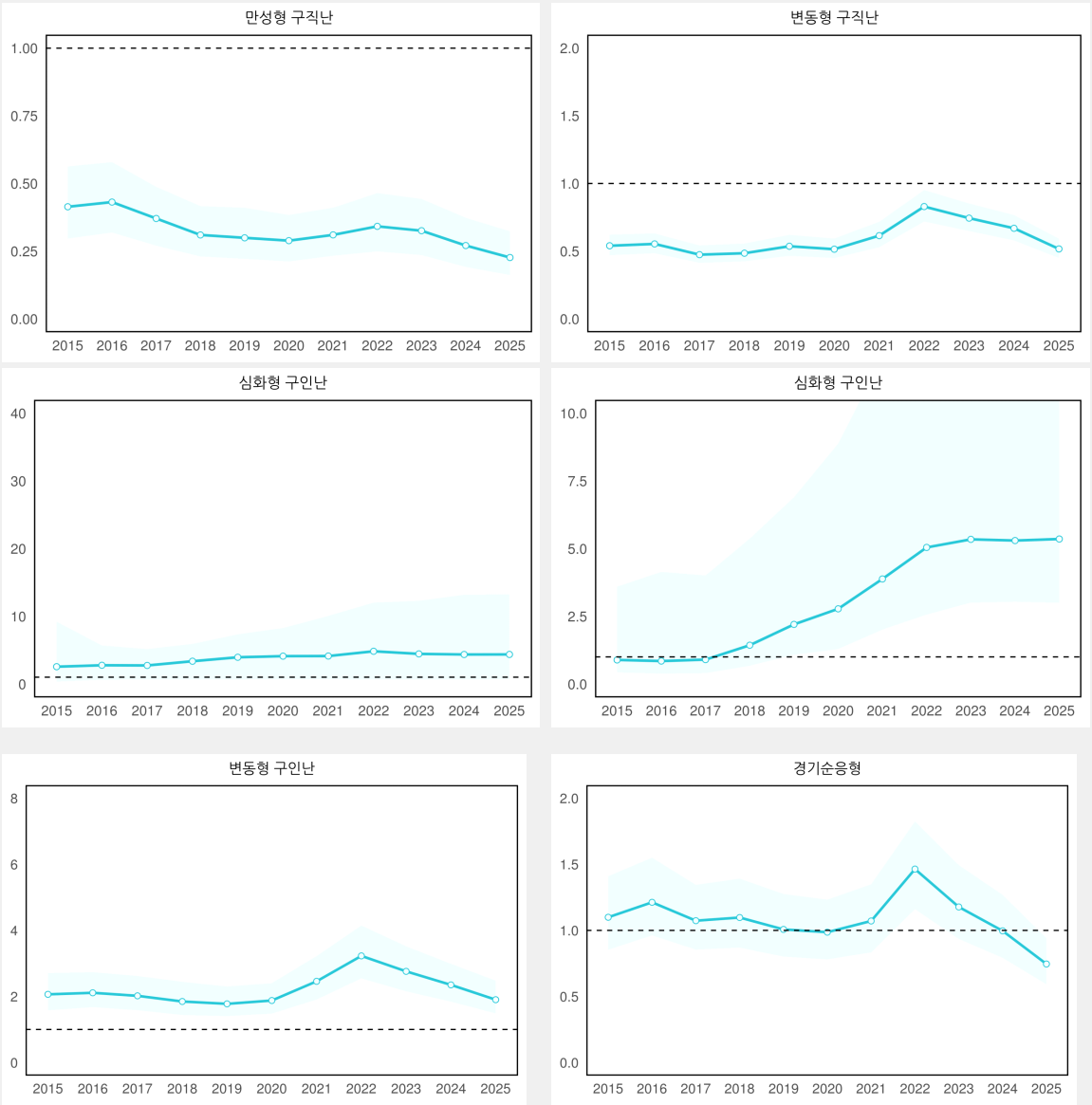
심화형 구인난에는 충남 13개 지역의 농림어업직에서 주로 관찰되었다. 2020년 이전에는 이 군집의 긴장도가 4.0 이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히 악화되어 2025년에는 4.8에 이르렀다. 구인인원은 2015년 대비 2025년 28.9% 감소한 반면, 동 기간 중 구직건수는 7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인력 공급 기반이 크게 약화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군 단위 충남의 농어촌 지역에서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15년 대비 2024년 11.4%p 상승하여, 시 단위 도시지역의 9.2%p 상승보다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였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시 지역이 2015년 대비 2023년 0.2%p 감소한 반면 군 지역은 0.8%p 증가하였다. 이는 농어촌 인력난이 구조적이며, 외국인 인력이 일부 대체하더라도 근본적인 해소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변동형 구인난은 아산·당진 등 충남 다수 지역의 기능·생산직에서 주로 나타났다. 2015~2020년에는 긴장도 2.0 수준을 유지하다, 2022년 제조업 경기 회복으로 긴장도가 3.5 이상 급등한 후 재조정되며 2025년 현재에는 분석대상기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군집은 경기민감도가 높고, 3D 업종 기피에 따른 구인난 현상이 지속되나 농림어업이 주를 이루는 심화형 군집보다는 변동폭이 크고 회복가능성도 높은 모습이다.

[③경기순응형]

경기순응형은 천안·서산의 기능·생산직 및 충남 일부 도시의 서비스·판매직, 사무·전문·관리직이 해당되며, 긴장도가 1.0 전후에서 경기 변동에 따라 등락하는 모습이다. 이 군집은 구조적 요인보다는 거시경기 변동의 영향이 크며, 2022년 구인난 정점 이후 구인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2025년에는 구직난 방향으로 재조정되고 있다.

군집별 평균 긴장도 추이 및 신뢰구간[1)]



주: 1) 평균은 사후평균(posterior mean)이며, 음영은 95% 신뢰구간(credible interval)
자료: 저자 추정

〈 참고문헌 〉

고영선 (2024)「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KDI FOCUS, 2024 Vol 130, 한국개발연구원

김유빈, 김우영, 김주영, 정성미, 함선유, 황선웅 (2022)「코로나19가 청년고용에 미친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남기찬, 김경민, 조성철, 홍사흠, 안종욱 (2020)「지역노동시장의 공간적 미스매치 분석과 정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노용진 (2024)「중소제조업에서 인력 부족인가 숙련부족인가? - 증상들과 측정에 관한 탐색적 사례조사」, 산업노동연구, 30권 3호, 2024:157~189

민순홍 (2025)「노동시장 미스매치 현황과 정책적 제언」, i-KIET 산업경제이슈, 제183호[2025-7], 산업연구원

송상윤, 김동준, 배한이 (2023)「지역 노동시장 수급 상황 평가」, BOK 이슈노트, 제2023-35호, 한국은행

오삼일, 이수민, 이하민, 장수정, Zexi Sun, Xin Cindy Xu (2025a)「AI와 한국경제」, BOK 이슈노트, 제2025-2호, 한국은행

오삼일, 채민석, 한진수, 장수정, 김대일 (2025b)「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BOK 이슈노트, 제2025-8호, 한국은행

이철희, 정종우 (2025)「인구변화가 지역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BOK 경제연구, 제2023-16호, 한국은행

한지우, 오삼일 (2023)「AI와 노동시장 변화」, BOK 이슈노트, 제2023-30호, 한국은행

한진수, 오삼일 (2025)「AI 확산과 청년고용 위축: 연공편향(seniority-biased) 기술변화를 중심으로」, BOK 이슈노트, 제2025-30호, 한국은행

NIMBLE Development Team (2021) 「NIMBLE: MCMC, particle filtering, and programmable hierarchical modeling」 Available at: https://cran.r-project.org/package=nimble.

Sethuraman, J. (1994)「A constructive definition of Dirichlet priors」, Statistica Sinica, 4:639-650